

저도어장 조업 12월31일까지 연장 요구

고성군수협, 고성군·강원도에 건의서 제출... “어장 철수시기에 도루묵 많이 잡혀”

연장 조업시 도루묵 어획량 30% 증가 기대

고성군수협과 어업인들이 현재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허용되고 있는 현내면 저도어장의 조업기간을 12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. 고성군수협에 따르면 저도어장

은 도루묵 주어장으로 많은 어획량이 기대되는 곳이나, 어장의 철수시기가 도루묵 성어기와 겹쳐 어업인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. 또한 어민들은 중국 쌍끌이 어선의 북한수역 입어로 인해 막대

한 어망손실 및 회유성 어종의 어획감소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. 이에따라 지역 어업인들은 금강산관광중단과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조업기간

을 1개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최근 강원도와 고성군에 제출했다. 동해안 최북단 저도어장은 동해안 3대 어장으로 해삼, 문어, 성게 등 다량의 어종이 풍부하게 분포돼 있다. 특히 도루묵의 경우 지난해 어획량이 18% 증가했으며, 1개월 연장 조업시 30% 이상의 어획

량 증가가 기대된다. 고성군수협 관계자는 “중국 쌍끌이 어선들이 북한수역에서 마구잡이식 조업으로 어업인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”며 “도루묵 성어기에 맞춰 조업연장 요구가 받아들여져 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”고 했다. 원광연 기자

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지원

총 3억9천만원 투입 죽왕면 오봉2리 등 3개 마을 준공 후 마을명의 소유권 등기·전담관리자 지정

고성군은 농기계의 효율적인 보관으로 내구력을 높여 농업인들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

2011년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한다. 고성군에 따르면 현재 127개

마을 6,200여 농가에서 경운기와 트랙터, 콤바인 등 5,400여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나, 농기계 보관창고를 갖고 있는 마을은 50여곳에 불과해 농업인들이 농기계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. 이 때문에 농업인들은 도난이

나 고장 등을 우려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교량 밑이나 집 주변에 농기계를 보관하고 있다. 해안가에 위치한 마을의 경우 염분을 포함한 해풍으로 농기계 부식이 발생하고 있다.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7일 도비와 군비, 자부담 등 총 3억9천

만원을 투입해 죽왕면 오봉2리 등 3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 사업(3동 330㎡형 2동, 200㎡형 1동) 착공에 들어가 오는 11월말 준공할 계획이다. 군에서 지어준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는 마을명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며, 보관창고 전담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하는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. 최광호 기자

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안내

한국농어촌공사는 영농의욕과 전문성을 갖추었으나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에게 안정적으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『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』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경영회생사업은 소유자산 강제처분에 따른 자산손실, 부채로 인한 금융비용 경감, 낮은 임차료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촉진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꼭 필요한 맞춤형 사업입니다.

- 1. 지급대상농가 :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%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농가
- 2. 대상농지 : 공부상지목이 전,답,과수원인 농지
- 3. 지급조건 : 연령은 70세이하 (후계농업인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)
- 4. 가 격 : 감정평가범위 내 합의된 금액
- 5. 임대료 : 연간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%이내



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(☎630-0113, 0120, 0122)